

<한국작문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2005년 6월 4일) 기조 발제 논문>

作文 研究의 動向과 課題

朴泳穆 (弘益大)

I. 序言

작문 연구는 언어 사용을 통한 의미의 구성 현상에 관한 연구이다. 언어 사용을 통한 의미의 구성 현상과 관련되는 요인은 무수히 많다. 의미의 구성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는 물론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또한, 의미의 구성 과정과 의미의 구성 방식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의미의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 및 내적 요인의 특성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처럼 작문 연구는 인간의 언어 사용과 연관되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을 연구의 주제로 삼는다.

작문 연구의 최근 동향을 조망하는 방법에는 국내의 연구 동향을 위주로 하는 방법과 국외의 연구 동향을 위주로 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음에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작문 연구를 위주로 하여 수사학적 전통, 작문 연구의 세계적 동향,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작문 연구의 주요 과제 등을 차례대로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해 보기로 한다.

II. 修辭學과 作文 研究

1. 修辭學의 歷史 概觀

현대의 작문 이론은 전통적 수사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수사학은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라 고전 수사학, 중세 수사학, 문예 부흥기의 수사학, 계몽주의 시대의 수사학, 20세기의 수사학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고전 수사학은 기원전 5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수사학을, 중세 수사학은 5세기에서 14세기까지의 수사학을, 문예 부흥기의 수사학은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수사학을, 계몽주의 시대의 수사학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수사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Bizzell과 Herberg가 1990년에 발간한 *The Rhetorical Tradition*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 시대 수사학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고전 수사학은 Aristotle에 의해 그 체계가 수립되었으며, Cicero와 Quintilian에 의해 그 체계가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고전 수사학에서는 수사학적 담화의 형식을 과거 행동의 판단에 주된 관심을 두는 법정 연설과, 미래 행동의 촉구에 주된 관심을 두는 정치 연설과, 현재 상태에 대한 공유된 신념의 강화에 주된 관심을 두는 의전 연설로 구분하였다. 고전 수사학에서는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청자(audience) 분석을 강조하였는데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형식의 담화에서 청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동기 분석의 방법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Aristotle(1954)은, 사람들

은 누구나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은 각기 다른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고전 수사학은 수사학의 체계를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모든 시대의 수사학은 고전 수사학에서 규정한 담화 생산의 목적, 예상 독자, 담화 생산의 과정, 논증, 담화의 조직 및 배열, 효과적인 표현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중세 초기의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수사학을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정적 유산으로 인식하였다. 고전 수사학에서는 건전한 상식과 연역 논증을 통하여 가능 세계의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지만,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지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수사학의 암흑기라 일컬어지는 중세 후기의 수사학은 효과적인 설교 및 공식적인 편지에 주된 관심을 가졌다. 또한, 수사학적 연구에 있어서 내용의 창안이나 배열에 관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문체에 관한 연구를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중세 수사학의 역사적 의의는 고전 수사학의 업적을 정리하여 후세에 전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문예 부흥기에는 문체론적 수사학의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이 시기의 수사학이 문체를 중시하게 된 이유는 고전에 대한 학습이 성행하였기 때문이다. 문체론적 수사학에서는 여러 종류의 어구 및 문장에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마침표 쉼표 괄호 인용부호 등의 용어는 이 시기에 생겨난 것이다. 문예 부흥기의 수사학에서는 개인적 담화의 문체를 중시하였다. 개인적인 대화나 사교상의 예절 등에 한 연구가 성행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담화에서의 성공이 정치적인 성공 혹은 사회적 성공 여부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사학자인 Ramus는 수사학과 변증법의 영역 구분을 제안하였다. 변증법은 세계에 관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삼단논법을 통하여 진실을 포착해야 하고, 수사학은 그 진실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Ramus는 주장하였다. 그는 내용의 창안과 배열은 변증법의 몫이고 표현과 전달은 수사학의 몫이라고 설명하였다. Ramus의 이러한 주장은 17세기 초에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귀납적 방법이 강조되면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Bacon은 삼단논법에 의해서는 결코 새로운 지식을 창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과 재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학을 구별하였다. 그러나 Bacon의 후계자들은 수사학을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학문이라고 인식하였다.

계몽주의 시대 수사학의 가장 큰 특징은 심리학과와의 새로운 결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고전 수사학에서는 담화 생산 과정에서의 심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그 이후의 수사학에서는 담화 생산의 심리학적 측면이 거의 경시되어 왔다. 19세기의 저명한 심리학자이며 수사학자인 Bain은, 비교 대조 연상 등과 같은 발화의 양식은 정신 작용의 유형을 반영하는 것이며, 묘사 서사 설명 논증 시가 등의 담화 양식은 인간의 정신적 기능과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사고의 과정 및 언어 사용의 과정은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진리의 객관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그 자체가 일반성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언어 사용의 일반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를 통하여 어떤 아이디어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아들이도록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Locke를 비롯한 그의 후계자들은 수사학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 및 18세기의 수사학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18세기 이탈리아 수사학자 Vico는 수사학이 절대적인 진리

를 밝혀내는 학문이 아니라 가능성과 신념에 근거하여 지식을 생산하는 학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언어의 기능에 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이 형성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19세기에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 대중 교육의 확산 및 새로운 대학의 설립 등의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학문 분야가 매우 빠른 속도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학은 학문으로서의 위상이 점차 축소되었으며, 그 주된 명맥을 작문 이론과 의사소통 이론 등의 학문이 이어받게 되었다.

20세기에는 의미, 가치, 의도, 지식 등의 문제를 탐구하는 수사학적 이론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Richards(1936)는, 의미는 담화 맥락과 함수 관계에 있으며, 언어는 하나의 담화 내에서 사용될 때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담화는 그 담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수사학을 언어적 의사소통과 언어 이해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였다. Burke(1969)는, 모든 종류의 담화는 사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동기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담화의 의미는 담화의 의도와 효과 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사학을 인간의 언어 행동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종교적 미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였다.

현대 수사학은 지식의 원천과 위상에 관한 문제 및 지식과 언어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지식의 위상 및 지식과 언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물론 수사학이나 철학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현대의 학문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은 합리적 관찰이나 사실의 축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논증에 의하여 발전한다. 인간의 새로운 학습은 해석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학문은 논증에 의하여 진보하고, 인간의 공동체는 담화에 의하여 결속력을 가지게 되며, 인간의 이데올로기는 설득의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고, 현실 또는 실체 그 자체는 인간의 언어 사용 방식과 함수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의 수사학은 그 관심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오늘날 인문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담화 행위, 담화 장르, 담화 공동체, 의사소통의 장면, 의식의 언어적 구성, 지식의 수사학적 구성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 수사학자들에게 있어서 언어 사용은 그 의도에 있어서 항상 설득적이며, 윤리적인 문제 및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포섭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언어 사용은 심리적 체계임과 동시에 대화에 바탕을 둔 사회적 체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의 수사학은 특정한 맥락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 문제를 다룬다. 지식과 신념은 설득의 산물이기 문에 그러한 지식과 신념을 일정한 이데올로기 하에서 작용하도록 돕는 일 또한 현대 수사학의 책임으로 인식한다. 수사학에서 인식의 문제 혹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현대 수사학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고전 수사학 이후로 수사학은 지식의 탐구 및 정치적 행동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의 관심을 가져 왔다. 수사학의 역사는 담화와 지식, 의사소통과 그 효과, 언어와 경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바친 탐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 2. 20世紀 修辭學 概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수사학은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서 수사학은 더 이상 대학에서 우세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유럽의 많은 대학들에서는 수사학

을 시대에 뒤떨어진 고전적 교과와 유물로 취급하였으며, 미국에서는 현대적 언어와 과학 중심의 새로운 교과과정의 요구에 부응하여 작문과 화법에 관한 소수의 과목에서만 수사학을 다루었다. 현대적 대학에서의 분과화와 특수화 경향으로 인하여 수사학에 대한 전통적이고 지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은 심리학 언어학 철학 문예이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흩어져 나갔다.

그러나 20세기가 진행되면서 수사학은 다시 언어와 의미에 대한 매우 가치 있는 학제적 이론 분야가 되었다. 20세기를 통하여 철학자와 문예 비평가들은 의미에 대한 전통적 이론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담화 분석이나 변증법과 같은 새로운 방법 체계 내에서 수사학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수사학은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 풍성해지게 되었다. 수사학은 지식이 논증에 의하여 창안되는 방식과 이데올로기가 권력에 의하여 확장되는 방식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행동 형식으로서의 언어 이론은 물론 의미의 결정체로서의 의도와 해석에 관한 이론 등을 모두 포괄하게 되었다. 즉, 수사학은 효과적인 담화로서의 언어에 대한 포괄적 이론이 되었다.

20세기 수사학 형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언어와 의미, 윤리와 이데올로기, 논증과 지식은 늘 동시 발생적이거나 중첩되는 주제이었다. 다음에서 개관하고자 하는 연대기적 단계는 수사학 관련 주요 저서의 출판 연대를 바탕으로 일련의 아이디어를 편의상 묶은 것이다. 20세기 수사학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이들 연대가 아니라 아이디어 사이의 상호 연관성이다.

20세기 초반 20년 동안에는 수사학 연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작문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학문 영역으로서 독립되지 못하고 영어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스피치학과가 19세기 말 무렵에 형성되기 시작하였지만 1920년대까지는 새로운 학부 분야에서의 학술지나 대학원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았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대학에서 스피치학과가 생겨남에 따라 수사학 역사 전공 학자가 생겨나고 의사소통과 설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영어과는 비평에 대한 형식적 접근 방식이 유행하게 됨에 따라 수사학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냉소적 경향에 대응하여 미국의 유명한 비평가 Kenneth Burke는 문학과 수사학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1931년에 출간된 *Counter-Statement*에서 그는 '문학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기 때문에 문학은 당연히 수사학의 한 분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젊은 언어철학자임과 동시에 나중에 영향력 있는 문예비평가가 된 I. A. Richards는 여러 명의 철학자와 언어학자와 인류학자들이 제공한 최신 통찰들을 통합하여 의미에 대한 맥락 이론을 형성하였다. 1923년에 C. K. Ogden과 함께 출간한 그의 책 *The Meaning of Meaning*에서 '의미는 단어 속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게 되었다. 1936년에 발간된 *The Philosophy of Rhetoric*에서 그는 수사학을 이러한 의미이론으로 규정하였다.

철학과 언어학 분야에서 I. A. Richards에게 자극을 준 러시아의 철학자요 문예비평가인 Mikhail Bakhtin은 1929년에 발간된 그의 책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에서 '의미는 언어 그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사적 환경과 이데올로기적 목적과 언어적 관습에 대응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언어가 사용되고 해석되는 방식과 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

하였다. Richards와는 달리 Bakhtin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수사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Bakhtin에게 있어서 수사학은 소멸 직전의 학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khtin의 의미에 대한 대화적 이론은 Richards가 제안한 수사학적 이론과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었다.

1945년 이후부터 Kenneth Burke는 계속하여 ‘문학은 상징적 행위로서 수사학의 한 형식’이라는 그의 이론을 정교하게 개발해 나갔다. 수사학에 대한 Burke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바로 1945년에 발간한 그의 책 *A Grammar of Motives*와 1950년에 발간한 그의 책 *A Rhetorics of Motives*이다. 이들 책에서 Burke는 모든 담화 형식을 수사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담화가 동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방법과 개념들을 개발해 내었다. 수사학은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의 결속을 다지고 공동체 사이의 구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식별의 상징적 수단을 탐색하여야 한다고 Burke는 생각하였다.

1958년에 벨기에의 법철학자 Chaim Perelman과 그의 동료 Lucie Olbrechts-Tyteca는 *New Rhetoric*이라는 부제를 단 방대한 저서 *Treatise on Argumentation*을 간행하였다. 이 저서에서 Perelman 등은 진리의 중재자로 여겨진 형식 논리에 의존해 온 전통 철학에 의하여 무시되어 온 영역인 신념에 관하여 추론할 수 있는 방식을 수사학이 제공해 준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Burke와 마찬가지로 Perelman은 수사학을, 논증과 설득에 관한 광범위한 이론임과 동시에 이성애 호소하는 이데올로기의 토대를 드러내 주는 분석적 도구로 보았다. 그는 또한 가정과 신념을 공유하는 공동체 내에서의 논증을 통하여 지식이 생성된다는 입장, 즉 지식의 창안에 관한 수사학적 관점을 지지하였다.

전통적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의 철학자 Stephen Toulman은 실제적인 논증의 철학을 연구하였다. 1958년에 발간된 그의 저서 *The Uses of Argument*에서 그는 주장과 근거와 조건과 가정에 따라 논증을 분석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확률적 논증을 위한 이러한 체계는 대부분의 지식 분야에서 진리 조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형식 논리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확실성을 탐색하기 위한 철학자의 질문을 거절하지 않았으며, 수사학을 언어와 추리에 관한 대안적 이론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oulman은 지식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 가정, 신념, 설득 등과 함수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수사학자 Richard Weaver는 논증에 대한 지식의 의존성으로 인하여 수사학은 논증의 윤리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1963년에 발표한 논문 ‘Language is Sermoni’에서 Weaver는 ‘모든 발화는 가치 의존적이고 수사학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네 명의 이론가들에 의하여 수사학은 말하기와 쓰기, 예술과 과학, 추리와 논증 등의 모든 언어 사용 영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학술적 수사학자들은 이와 같은 풍성한 시기의 이론적 발달을 조율하고 정교화 해 나가고 있다.

1965년 이후 급진적 정치학과 언어이론이 프랑스의 철학자 Michel Foucault와 Jacques Derrida의 저술에 의하여 새롭게 등장하였다. 1966년에 간행된 *The Order of Things*와 1969년에 간행된 *The Archeology of Knowledge*에서 Foucault는 ‘지식은 담화에 의하여 창안되며, 담화는 반드시 지식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활동을 조절하고 제도적 힘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철학자들은 지식을 실체의 반영으로 생각하고

언어를 지식을 중재하는 매개체로 생각함으로써 담화와 지식과 권력에 대한 이론들을 중시하지 않았다.

Derrida는 ‘언어는 그것을 선행하여 존재하는 지식을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1967년에 간행된 *Of Grammatology*와 1972년에 간행된 *Dissemination*에서 Derrida는 언어가 실체를 기록하거나 명명하거나 표상한다는 철학적 가정과 문학적 가정을 공격하였다. Derrida에 의하면 의미의 기원이 언어적 지시체에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환상이라는 것이다. Foucault와 Derrida는 그들의 이론을 수사학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철학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이들의 입장은 철학과 수사학 사이의 오래된 갈등 구조에서 오히려 수사학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철학은 언제나 절대적 진리에 관한 지식을 찾고, 언어를 진리를 소통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반면에, 수사학은 인간사에 있어서의 불확정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찾고, 가능성과 일치하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창안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Foucault와 Derrida는 명시적으로 수사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반철학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Foucault와 Derrida에 의하여 제기된 인식론적 회의는 20세기 철학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자연과학을 포함을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지식의 기저는 정치적 편견과 언어적 관습에 관한 숨은 가정, 즉 무엇을 지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을 지식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정을 시험해 왔다. 수사학적 이론에 있어서 수사학이 인식론적이라는 생각, 즉 논증과 설득이 지식을 창안한다는 생각은 이제 사회적 공동체와 학문적 공동체의 담화에 대한 연구를 위한 수용 가능한 기저가 되었다.

여성은 그들의 언어가 태도와 권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집단을 구성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많은 학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명시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지와 연관되는 문제를 탐구해 왔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전통적 종속관계를 드러내는 여성 언어의 방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반면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폭력과 양육과 연관되는 긍정적인 전통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여성주의 학자인 Julia Kristeva는 1979에 발간된 *Women's Time*와 같은 저술을 통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욱 윤리적이며 이러한 특성들이 여성들의 언어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Helene Cixous는 1986년에 발간된 *A Woman Mistress*에서 여성의 언어에 내포된 부정적인 이미지의 기저가 되는 긍정적인 특성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학적 분석은 설득을 수단으로 하여 지식을 창안하는 수사학적 행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글을 쓰는 행위는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이다. 의미 구성 행위의 설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문 이론은 수사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수사학은, 언어와 지식과 담화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본질주의, 객관주의, 표현주의, 사회주의 수사 이론의 네 가지 부류로 분류되기도 한다. 본질주의 수사이론은 언어의 형식적 속성을 중시하는 이론으로서, 언어가 지식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지식을 전이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객관주의 수사 이론은 언어가 본체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가능케 하는 지식은 언어 사용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현주의 수사 이론은 언어를 통한 인간의 의식 작용 및 상상작용을 중시하는 수사 이론이고, 사회주의 수사 이

론은 언어를 물질과 역사의 발전 과정에 뿌리를 둔 사회적 활동으로 규정하는 수사이론이다.

### Ⅲ. 作文 研究의 動向과 課題

#### 1. 作文 研究의 特徵的인 傾向

현대 수사학뿐만 아니라 작문 이론 분야에서도 의미의 구성 방식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입장에 따라 다양한 작문 이론이 생성되었다. 다음에서는 Nystrand과 Greene과 Wiemelt 등이 1993년에 ‘Where did composition studies come from.’이라는 논문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에서 이루어진 현대 작문 연구의 특징적인 경향을 형식주의,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로 구분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960년대 이전까지의 작문 이론은 형식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문학 분야에서의 신비평 이론이 성행하던 이 시기에 있어서의 작문 이론은 규범 문법과 수사론적 규칙을 강조하였으며, 작문 교육은 모범적인 텍스트의 모방을 중시하고 표현의 과정에서 어법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지도의 초점을 두었다. 형식주의 작문 이론가들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객관성을 중시하였다.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관한 모든 중요한 문제는 텍스트 구성 요소의 분석과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 분석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작문, 읽기, 사고 등의 인지적 행위와 관련되는 증거들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는 피상적인 증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형식주의 작문 이론가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문학 이론뿐만 아니라 경험주의에 바탕을 둔 행동주의 언어학 이론에서도 중시되었다. 즉, 언어는 관찰이 가능한 언어 행동과의 관계 아래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언어 행동의 기저가 되는 정신 작용에 대한 연구는 언어 현상의 실체를 혼란시키기만 한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작문의 과정을 중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언어는 경험을 표상하는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경험을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조정하는 개별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작문은 기본적으로 역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 즉 계층적으로 조직된 인지적 표상을 텍스트로 번역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작문 이론가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다. 인지심리학과 수사학의 결합을 통하여 생성된 구성주의 작문 이론은 작문 과정에서의 계획하기 작용과 고쳐쓰기 작용이 서로 다른 상황 및 서로 다른 수준의 필자 사이에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 의하면, 언어는 인간의 경험을 조직하고 형상화함으로써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생성된 의미는 심리적 표상 혹은 인지 도식으로서 인간의 두뇌 속에 저장되어 지각, 이해, 기억 등의 정신 작용을 조정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작용을 활성화한다.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개별적 작문 행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텍스트의 개념을 필자의 계획과 목적과 사고를 언어로 번역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 이론에서는 필자를 수사론적 문제 해결자로, 독자를 능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해석자로 본다. 또한 텍스트를 통한 의미 구성 능력은 개인의 목적의식과 사고 능력의 계발을 통하여 신장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의 작문 연구에 있어서 언어 사용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동향의 배경에는 언어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였다. 담화로서의 언어의 기능을 중시하는 사회 언어학자들이 Chomsky의 언어에 대한 기본 가정에 도전하게 되었다. 언어 사용의 사회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언어학 이론은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을 태동하는 데 강한 영향을 미쳤다. 언어의 사회성 및 기능성을 강조하는 언어 연구의 동향에 부응하여 작문 이론가들은 작문의 과정에 대한 구성주의 작문 이론가들의 주장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 의하면 필자 개개인은 개별적으로 작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제약을 가하는 언어 사용 집단 혹은 언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작문을 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은 의미 구성에 있어서 담화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후기 구조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은 의미 구성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사회적 맥락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 외에는 구성주의 작문 이론과 다름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언어 공동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텍스트의 개념을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 및 규칙의 집합으로 규정한다. 이 이론에서는 필자를 담화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성원으로, 독자를 해석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으로 본다. 또한 텍스트를 통한 의미 구성 능력은 건전한 상식의 계발을 통하여 신장되는 것으로 설명하며, 건전한 상식의 계발은 언어 사용 집단으로서의 담화 공동체 혹은 학문 공동체의 참여로 인하여 가능한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종류의 작문 이론, 즉 형식주의,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작문 이론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의미의 구성 방식과 관련하여 작문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진 주된 연구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작문 이론들을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범주화한 것은 작문 이론의 특징적인 경향을 인접 학문과 연관을 지으면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편의상의 구분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작문 이론이 다른 작문 이론에 의해 그렇게 쉽게 대치되는 일도 없거니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작문 이론이 거의 비슷한 세력으로 서로 다른 작문 연구가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2. 意味 構成 現象에 대한 새로운 說明 方式

사회구성주의 작문 이론가들은 문어활동 능력을 규정함에 있어서 텍스트의 자질보다는 실제적인 담화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어활동은 사회적 상황에 기초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텍스트적 측면과 사회인지적 측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언어 사용 활동은 의미를 구성하는 순간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문어적 행위는 유목적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변형하는 구성적인 인지 과정에 비롯되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 의미 협상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의미 협상은 개별 독자와 필자가 직면하는 대립적 요구, 서로 다른 요구와 목적과 제약, 그리고 가능성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어활동은 수사론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활동으로서 한 개인이 보유하는 일반화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며, 기호 해독 및 인입을 위한 일련의 기술적 기능들의 집합도 아니다. 문어활동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목적으로 읽기와 쓰기를 이용하는 일련의 행위와 교섭

작용의 집합이다. 문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텍스트를 해독하거나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일, 즉 담화 활동을 한다. 문어활동 능력의 효과적인 신장을 위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중시해야 할 사항은 유능한 필자나 독자가 능동적인 담화 활동 과정에서 활용하게 되는 사회인지적 전략이다. 문어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첫째, 담화 활동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관습과 기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주어진 과제와 연관되는 읽기 및 쓰기를 위한 일련의 문제 해결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들이 익혀야 할 담화 활동의 관습에는 텍스트의 형식적 자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생성 및 선정 방식, 논증의 구성 방식, 예상 독자의 요구 및 기대 수용 방식 등에 관한 것이 있다. 어떤 한 가지 유형의 담화 활동에 필요한 문어활동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체나 표현 양식에 관한 관습적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정 유형의 담화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른 유형의 담화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특정 담화 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이 다른 유형의 담화 활동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기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담화 활동의 수행 방식 혹은 담화 공동체의 참여 방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담화 활동의 사회적 목적에 바탕을 둔 특징적인 사고 양식을 배워야 한다. 담화 활동은 담화 공동체의 도구로서, 역사적이고도 사회적으로 구성된 특정 공동체의 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작문 혹은 말하기 양식으로 존재한다.

의미의 구성 방식을 설명하는 관점으로서 재생산, 대화, 협상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작문의 과정에서 필자는 기존의 혹은 이용 가능한 의미를 재생산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논쟁의 소지가 많다. 읽기에 대한 구성주의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독자는 다음 세 가지 수단, 즉 텍스트와 문화적 바탕에 기초한 기대에 강한 영향을 받는 과정과 기존지식 등 세 가지 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선정하고 조직하고 연결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의미를 생성한다. 다른 의미를 재생산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는 일은 학습, 텍스트 간 전이, 문화의 전승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경우에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미의 구성을 재생산으로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 실체의 재생산이 가능한 것인가? 텍스트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생산되는 것인가? 텍스트와 간텍스트는 독자와 필자가 실제로 구성하는 의미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가? 재생산 이론은 의미 구성 현상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한다는 약점을 지닌다.

재생산이 일원적인 의사소통임에 비해 대화와 협상은 이원적인 의사소통이다. 사회적 대화주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는 절박한 동기나 일정한 논리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등한 자격을 지닌 개체간의 비규제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생성된다. 사람들은 집단적 생활을 영위해야 하므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정해야 한다. 모든 텍스트의 의미 구성이 갖는 기능은 대화에 의해 기술되는 자유롭고도 협동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대화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인지와 주체성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부적절한 면이 있다. 대화로서의 의미 구성 결과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마음속이나 개인의 독특한 표상에 있지 않고 상호작용의 순간이나 대화의 순간 혹은 공기 중에 존재하게 된다. 의미 구성의 주체가 없는 대화주의 모

델은 비교적 비규제적 과정, 즉 의미가 일련의 가능성의 집합 내에 존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배양되고 형성되고 확장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대화로부터 산출되는 의미는 공유된 이해의 침전물이며 공유된 상식의 축적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협상적 의미는 어떤 규제적 힘에 직면하여 딜레마에서 탈출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노력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협상적 의미의 구성 과정은 필자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필요 조건에 직면했을 때 작동한다. 첫째, 의미 구성의 과정에서 압력을 받거나 제약이나 대안을 변환해야 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작동한다. 둘째, 필자가 문제가 있는 인지적 수사론적 상황을 관리하거나 협상할 필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돌릴 때 작동한다. 협상은 행위를 형성하는 복수의 소리, 즉 과거 경험과 현재 기회의 소리, 지혜의 소리, 요구와 판단의 소리, 가능성의 소리, 담화 관습의 소리 등에 대한 반응으로서 목표 설정, 제약 부과, 적정 언어의 제안, 보편성의 추구, 기회의 현시, 적응에 대한 요청, 대안의 제시 등과 기능을 한다.

협상을 통하여 구성되는 의미는 잠정적인 해결책이며 다양한 소리에 대한 반응이다. 복수의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서 협상적 의미는 소리로 드러난 언어나 아이디어의 이질적 혼성물 이상의 것이다. 협상적 의미는 복수의 목표와 제약과 전략과 언어를 다룸으로써 얻어진 구성물이다. 아이디어와 의도와 언어에 대한 협상적 의미 망은 형성적 힘에 대한 단순 반응으로써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적 힘에 대한 선택적 반응으로써 구성되는 것이다. 잠정적 해결책으로서 협상적 의미는 어떤 소리들을 밝히거나 그 소리들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거나 저항하거나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변형하거나 종합하거나 재해석함으로써 협상의 범위 내에 있는 소리들에 대해 반응한 결과이다. 잠정적 해결책으로서의 협상적 의미는 텍스트의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해결책과 일관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다. 그 해결책은 미해결의 갈등이나 모호성을 잠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한 시점에서는 억압되었던 소리가 다른 시점에서는 다시 부상할 수도 있다.

### 3. 텍스트 生産 活動으로서의 作文에 대한 研究 動向

언어 사용의 일차적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다. 텍스트 생산 활동으로서의 작문은 독자와의 의사소통 시도를 표상 한다. 필자는 작문 활동의 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의도와 목적을 지니게 되며, 이들을 언어적, 심리적, 사회적 원리에 따라 구조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필자는 정보성, 정확성, 관련성, 명료성, 체계적 해석 가능성 등과 연관되는 Grice의 격률을 지킨다든지, 입장, 상황, 의도, 태도 등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관습을 지키게 된다. 또한 필자는 정보의 새로움, 가능성, 출현 비율 등을 나타내기 위한 기제를 이용한다든지 스키마와 스크립트, 프레임 등과 같은 대단위 조직 유형을 예상케 하는 인지 구조의 예측 가능성 등을 점검하게 된다. 텍스트의 구성 방식에 대한 이론은 작문의 조직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원리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작문이론 및 작문교육이론 분야에서 이루어진 텍스트언어학적 연구의 성과에 대해 Grabe와 Kaplan이 1996년도에 발간한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을 참고로 하여 영미지역을 중심으로 텍스트 생산 활동으로서의 작문에 대한 연구 동향을 간단히 제시해 보기로 한다. 텍스트 생산 활동으로서의 작문에 대한 연구는 표면적 구조 중심 연구와 내적 구조 중심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표면적인 문장 수준에서의 연구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Chomsky 학파의 영향으로 작문 능력의 발달을 드러내는 통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학생들이 작성한 텍스트의 핵심적 구조를 표지로서 T-unit(하나의 주절과 그에 딸린 모든 종속적)이라는 개념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통사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삼았다. T-unit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Hunt 식의 연구는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측정의 신뢰도 또한 상당한 정도로 확보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집단의 작문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어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집단 구성원의 작문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unt 식의 연구 결과는 작문 지도에 있어서 문장 결합 훈련을 성행하게 만들었다. 문장 결합 훈련은 그 배경 이론이 지닌 결함에 불구하고 언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장 결합 훈련은 학생들로 하여금 통사론적 형식에 대한 의식적인 집중을 가능하게 하고, 고쳐 쓰기를 위한 체계적인 기법을 제공하며, 문장 구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통사론적 유형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며, 문장 구성의 유창성과 빈도를 높임과 동시에 문장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문장 내 정보 부하의 밀도를 높일 수 있게 하며, 정보의 덩어리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통사론적 단계와 정보 처리의 다른 단계를 통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효과에도 불구하고 통사적 복잡성이나 통사적 성숙도가 테스트 생산 능력의 발달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문장 종결 단위와 문장 결합에 대한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텍스트 생산 능력의 발달과 연관된 통사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작문 연구가들과 발달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텍스트 생산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형용사의 사용, 명사구의 복잡성, 자유 수식어의 사용, 부사구의 사용, 관계절의 사용, 한정 부사절의 사용, 문체론적 어순의 다양성, 피동구문의 사용, 명사구 주어의 복잡성, 시제와 양태의 사용 범위 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학년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이상과 같은 통사론적 특성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사실은 여러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여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통사론적 특성을 지도한다고 하여 학생들이 생산한 텍스트의 질이 높아진다는 확실한 근거는 찾기가 힘들다. 작문 연구 분야에 있어서 통사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텍스트 생산의 특성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 연구라고 규정할 수 있다.

텍스트의 구조화와 작문 능력의 발달과 관련하여 통사론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유형의 연구는 프라그 학파의 초기 연구에서 비롯된 정보화 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기능적 관점에 바탕을 두었는데 고립된 문장이나 무선적으로 연결된 문장이 아닌 결속성을 지니고 연결된 문장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 사이의 관계, 텍스트가 존재하는 언어 외적 상황,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의사소통적 기능, 텍스트 생산자나 수용자의 동기와 지식과 의식의 상태에 관한 텍스트 생산자의 명시적인 가정 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정보화 구조에 관한 연구의 예로서 문장의 화제 구조, 화제 개발, 화제 구조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정보 사이의 관계 유형으로서 'given-new', 'topic-comment', 'theme-rhem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텍스

트 내의 정보 배열과 연관되는데 학자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정보의 구조화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의 연구인 문장의 화제 구조에 대한 연구는 담화의 화제, 문장의 화제적 주어, 통사적 주어, 문장의 시작 요소 사이의 관계를 주로 연구하였다. 화제의 계속성에 대한 연구는 담화에 있어서 화제 전개에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화제 구조 분석연구는 작문의 질적 차이와 고쳐쓰기 전략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표면적 구조 중심의 텍스트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텍스트의 결속성 연구를 들 수 있다. 텍스트의 결속성 연구는 텍스트의 표면 형식을 연결짓는 데 이용되는 체계적 장치, 즉 텍스트를 결합하는 기저 관계에 대한 표면적 장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지시, 대치, 생략, 접속, 어휘 반복, 포함, 동의와 반의, 병치 등의 장치는 텍스트의 표면 구조를 연결 짓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결속성과 일관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작문 연구 분야에서는 텍스트 구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텍스트 구성 모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는 통사구조, 의미도식, 결속표지, 장르와 조직, 어휘형식과 관계, 텍스트 구조의 문체론적 측면, 지식기저 등이 있다. 작문 연구 분야에서는 이들 요인들 중에서 일관성 요인과 텍스트외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일관성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작문연구에서 중시되어 온 문제이다. 1980년대 이후 인지심리학과 언어심리학 분야의 학자들은 독자가 텍스트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방식과 필자가 의미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텍스트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관성의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 일관성의 일정 부분은 텍스트의 구조 표지가 아닌 독자의 해석 체계에 구성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담화분석 분야의 학자들도 텍스트의 일관성은 텍스트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사에 관한 구조화된 지식, 즉 스키마, 스크립트, 프레임 등에 의하여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일관성의 비언어학적 기저에 대한 주장은 화용론 분야의 상관성이론가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상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메시지의 일관성은 상관성의 원리, 즉 인간 존재는 새로운 정보를 구성하기 위하여 텍스트의 정보와 다른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는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텍스트 구조 자체가 텍스트의 일관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4. 作文 研究의 課題

앞으로 전개 될 작문 연구는 언어심리학과 인지심리학에 바탕을 둔 작문 과정에 대한 연구, 언어사회학과 사회언어학에 바탕을 둔 작문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연구, 작문 능력의 효과적인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작문 교육에 대한 연구 등의 세 가지 방향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문의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작문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작용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작문과 독서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문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맥락이 작문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텍스트 공동체와 생산된 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연구, 텍스트 공동체가 생산한 텍스트의 장

르적 특성에 관한 연구,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인지작용에 관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문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작문 능력의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작문 능력의 발달 단계에 관한 연구, 효과적인 작문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작문 능력의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학술적 작문과 비학술적 작문의 특성 및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작문 연구의 과제는 무수히 많다. 작문의 특성과 원리에 대한 연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작문 지도의 원리와 방법 및 작문 평가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론적 연구에 의하여 개발된 작문 지도 및 평가의 원리를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 연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각 교육 기 관별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작문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 방법의 정확성, 적절성, 객관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작문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작문 연구의 분야는 작문 이론에 관한 연구, 작문의 활용에 관한 연구, 작문 교육에 관한 연구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작문 이론 분야의 연구에서는 특히 동양의 수사학적 전통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사학적 전통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문의 활용 분야 연구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정보소통기술(ICT) 환경을 고려한, 작문 공동체와 장르와 매체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문 교육 분야의 연구에서는 작문 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와 함께 효과적인 작문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와 작문 평가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고도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급속도로 변화하는 대학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학 작문 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 VI. 結語

작문 연구의 최근 동향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작문 연구의 뿌리가 되는 수사학의 전통을 각 시대별 특성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수사학적 전통에서 파생된 현대의 작문 이론을, 형식주의 작문 이론, 구성주의 작문 이론, 사회구성주의 작문 이론 등으로 구분하여 각 이론의 특징을 요약해 보았다. 그리고 의미 구성 현상에 대한 새로운 설명 방식을 재생산, 대화, 협상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또한, 텍스트 생산 활동으로서의 작문에 대한 연구 동향을 표면적 구조 중심 연구와 내적 구조 중심 연구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끈으로 이와 같은 연구 동향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작문 연구의 주요 과제를 소략하게나마 제시해 보았다.

작문 연구는 인문과학적 연구인 동시에 사회과학적 연구이다. 작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의미 구성 현상은 인간의 인식작용은 물론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현대의 새로운 학문은 학문적 복합성을 그 특징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현대의 작문 이론이 다양하게 생

성된 배경에는 언어학, 심리학, 인공지능공학, 사회학, 철학, 문학 등의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의 노력이 있었다. 앞으로 우리의 작문 연구가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국작문학회가 주축이 되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작문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Freedman S.W., Dyson A.H., Flower, L., and Chafe W. (1987) Research in Writing: Past, Present, and Future, 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Writing Technical Report No. 1.

1. 작문의 활용 분야

- 작문은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 그 이상의 것이다.
- 작문은 일종의 사회적 활동, 공동체와 직장과 학교에서의 사회적 생활을 위한 문화적응 과정
- 작문 연구는 작문의 언어적 인지적 기능적 특성을 밝혀내고, 공동체, 학교, 직장 등의 사회적·조직적인 구조 내에서 작문이 하는 기능과 역할을 규명하고, 다양한 형식의 작문이 평가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학문적 활동이다.
- 작문의 활용은 사회적 맥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 작문 맥락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특정 과제의 성질, 관여하는 사람들, 광범위한 사회적 제도적 구조 등이 있다.
- 작문연구의 과제로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필자가 직면하는 문식 공동체의 특성, 이들 공동체의 요구, 이들 공동체에서 필자가 채택하는 전략, 교사가 필자와 공동체의 요구 사이를 중재하는 방식,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문식 세계에 훌륭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2. 작문 이론 분야

사회적 맥락, 과정과 결과, 기술, 작문 전략의 개인적 차이

- 1) 연구와 실천 사이의 연계 강화를 위해 작문의 사회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 심층적 연구
- 2) 작문 과정과 작문 결과를 연결 짓기 위한 명시적 전략 연구
- 3) 작문 과정과 결과에 대한 ICT의 영향 연구
- 4) 작문 과정에서의 필자들 사이의 차이 연구

3. 작문교육 분야

- 1) 작문 능력의 발달 : 기호체계지식, 담화구조지식, 작문전략, 작문과 학습, 학교작문 맥락
- 2) 작문에 대한 성인과 동료 반응
- 3) 작문에 대한 컴퓨터 반응
- 4) 작문과 필자에 대한 연구: 작문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지식과 전략
- 5) 작문과 수업: 작문 수업이 학생들의 작문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 6) 쓰기와 읽기, 쓰기와 말하기, 쓰기와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